

자유롭고 현란한 '광시곡'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狂詩曲: 형식·내용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악곡)

리뷰-세종솔로이스츠 '바이올린 엑스트라반간자'

뉴욕필 프랭크 황·메트로폴리탄 데이비드 찬·함부르크 다니엘 조 협연 낭만·위트 깃든 레오나르드 '스페니쉬 풍의 세레나데 유모레스크' 인상적

협연자로 나선 다니엘 조의 활시위에서 선율이 피어난다. 규칙적 속주인 트레몰로부터 트릴까지 다채로운 테크닉이 펼쳐지는 동안 객석은 그 어떤 소음도 없는 뮤트(mute-음소거) 상태다.

데이비드 찬은 표현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하이음으로, 프랭크 황은 밸런스 잡힌 바이올린 탄주로 객석을 사로잡는다. 저마다 개성 있지만 조화로운 멜로디는 화이부동의 경지 그 자체.

이날 세 비르투오소(명장)가 들려준 자유로운 랩소디를 묘사하기에 '광시곡(狂詩曲·엑스트라반간자)'보다 적절한 말은 없을 것 같다.

지난 17일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바이올린 엑스트라반간자' 공연이 펼쳐졌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세종솔로이스츠가 형식과 내용에서 자유분방한 기악곡인 광시곡(狂詩曲)을 주제로 선보인 무대였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랭크 황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소속 데이비드 찬, 함부르크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다니엘 조까지 세 명 악장이 협연자로 출연했다. 그들이 국제무대에서 쌓아온 음악적 아성을 확인하려는 클래식필의 기대감이 공연장에 감돌았다.

공연은 프랭크 브리지의 '왈츠 인터메조'로 막을

올렸다. 비탄으로 시작해 우아미로 끝나는 기승전결이 인상적이었으며 현악 주자들은 외성과 내성 파트로 나눠 충실하게 합주했다. 소리를 얹어 거머 만드는 화성과 잔향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비발디 곡 '세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F장조, RV 511' 차례가 되자 세 악장들이 무대에 올랐다.

다니엘은 바이올린 주자들 곁에 섰으며 프랭크는 콘트라베이스 옆에, 데이비드는 중간에 자리했다.

트리오는 마치 단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것처럼 독립적인 선율을 들려줬다. 조와 찬, 찬과 황 그리고 황과 조의 듀오 조합을 통한 다채로운 합주도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소규모 실내악 편성으로 지휘자가 부재해 반주가 조금 빨라지는 대목도 있었다. 그럼에도 세 악장은 자신들의 '친정' 악단인 세종솔로이스츠 단원들과 자연스럽게 음계를 주고받았다.

특유의 낭만과 위트가 깃들어 있는 레오나르드 '스페니쉬 풍의 세레나데 유모레스크'도 울려 퍼졌다. 데이비드의 리드가 돋보인 이 작품은 예측불허의 전개가 인상적이었다.

♭플랫 정도로 흘러갈 것 같은 음계에서는 갑작스레 튀는 음이 등장했다. 이는 소리의 부조화라기보



지난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바이올린 엑스트라반간자' 공연이 펼쳐졌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다 악곡의 매력을 배가시켰는데 장조와 단조의 선법이 뒤섞인 듯한, 음형에 자유로운 광시곡만의 관능미를 선사했다.

첼로 두 대와 여섯 대 바이올린 등으로 편성된 골리호프 곡 '마지막 라운드'에 이르러서는 음악적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세 명씩 좌우에 배치된 현악 주자들이 열정적으로 소리를 주고받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악곡 중 후반부에는 활대가 악기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 다소 거슬렸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과장된 페르마타(늘임)와 잘현악기 현을 튕기

는 피치카토 기법 등이 의도된 주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대미를 장식한 곡은 현악 앙상블의 균형미가 압권인 멘델스존 '현악 8중주 Op.20'. 알레그로 모데라토에서 안단테, 스케르초풍 발랄함과 격양된 프레스토로 연계되는 흐름은 어떤 미사여구 없이도 화려했다.

현악 8중주에 대해서 멘델스존은 "이 작품은 모든 악기가 관현악 스타일로 연주해야 하고, 피아노와 포르테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유념하듯 오케스트라는 균형미와 대위

법을 준수하며 연주를 했다.

여름날 비까지 쏟아져 현이 온·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연주자들은 현악 옥텟(8중주)을 충실하게 재현해 멘델스존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했다는 평가다.

다만 지역에서 보기 드문 라인업, 레퍼토리를 이날 하루 펼쳐보였음에도 생각보다 빈 객석이 눈에 들어온 점은 다소 아쉬웠다. 향후 저렴한 관람료(1만원) 외에도 관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소통의 불안전함, 그 너머의 상상 세계

김시마 조형예술가 'EKOPHRASIS' 전... 23일까지 오버랩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불안전하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견지해 온 이들의 대화가 온전히 전달되지는 불가능하다. 복잡화, 현대화, 고도화를 특징으로 한 오늘날, 이러한 양상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형예술가인 김시마 작가가 'EKOPHRASIS'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오는 23일까지 오버랩.

전시 주제인 'EKOPHRASIS'는 예술을 글로 묘사하는 의미의 'EKPHRASIS'에서 차용해 'EKO'와 합성한 개념이다.

오버랩 김선영 큐레이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정보 손실과 왜곡에 주목했다"며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에 기인해 작가가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기술적 요소를 통해 선보인다"고 전했다.

작품은 알고리즘과 회로, 사운드, 이미지를 연계한다. 각각의 개체는 인터랙션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모듈들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사운드와 이미지에서 발현되는 소통은 유기적으로 가시화되는데, 공명과 변수를 매개로 전개되는 이 같은 방식은 삶이라는 사유로 전이된다.

'Ekophrasis-Entity B'는 마치 신경 전달 물질인 뉴런의 모습을 형상화한 듯하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그것의 양상을 일정하게 규범화하기는 어렵다. 소통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개인, 사회, 국가 등 모든 주체들의 대화 방식을 환기한다.

'Ekophrasis-Entity A'는 실험적이며 정교한 체계를 보여준다. 기반과 소자로 대변되는 작품은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과정 이전의 여백의 세계를 초점화한다. 관객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경로로 작품 사이를 이동하며 의도치 않게 작품 사이를 교란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시마 작가 외에도 오버랩 기획자인 김선영과 박유영, 어드바이저 김현돈과 조운우가 힘을 보탰다.

한편 김시마 작가는 "세계를 이루는 객체는 언제나 소통하고 상호작용하지만 일관적이지 않다"며 "이번 전시는 그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단순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양상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kophrasis - Entity B'

'트로이 트리오' 현악 3중주 매력속으로

베토벤·바흐 곡 연주... 20일 광주예술의전당

3년 전 광주에서 창단한 남성 현악앙상블 '트로이 트리오' <사진>는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현악기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왔다. 세 멤버들이 베토벤과 바흐의 현악 선율로 정중을 만난다.

트로이 트리오가 제3회 정기연주회 '이상과 현실'을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공연의 막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로 열린다. 대표적인 절대음악 작곡가인 탓에 바흐에게 붙어 있는 딱딱하고 고루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변주곡의 아름다움과 아리아의 단순명료한 선율이 돋보이는 이색적인 매력에 있다.

음악학자 가이링거가 "만일 바흐의 다른 곡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 한 곡만 남겨둔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은 음악사에서 불멸할 것이다"고 언급할 만큼 바흐의 예술적 성취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다.

베토벤 '현악 3중주 3번 사장조 Op.9 1번'도 울려 퍼진다. 베토벤은 특정 곡에 창의성을 발휘하면 다음 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곡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Op.2번과 달리 이 곡은 극적 대비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한편 트로이 트리오 김성복은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수학했다. 현재 내셔널 솔리스트 양상범 및



유니크 첼로과라트, 라인과라트 등에서 활동 중. 추계예대를 졸업한 박혁진은 LA에서 오케스트라 투어 연주를 진행했으며 목포시향, 원주시향 등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동했다. 아울러 전주 예고 및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대 출신인 이세기는 광주시향 객원 연주자를 역임하고 현재 여수 영재오케스트라 강사로 있다.

박혁진은 "변주곡 장르 중에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골드베르크'와 베토벤 트리오 중 활발한 느낌을 가진 G장조 곡을 선보인다"며 "트로이 트리오의 첫번째, 두 번째 정기연주회가 모두 '베토벤'의 곡들이었다는 점에서 감회 깊다"고 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통회화부터 미디어아트까지...남도미술 방향성 조망

광주서구문화원, 호남한국학 강좌
10월21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

남도의 전통회화부터 미디어아트까지 다양한 미술의 세계를 훑어보는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이번 강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미래의 방향성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은 오는 10월 21일까지(매주 월요일 오후 3시) 모두 10차례 호남한국학 강좌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진행한다.

첫 강좌로 최근 박은순 덕성여대 명예교수가 '조선 후반기 전라도의 시각적 재현양상'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다. 고지도도를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박 교수는 조선 후기 남도 미술의 시각이 어떻게 재현됐는지를 강의로 풀어냈다.

이후 강의는 이태호 명지대 석좌교수의 '조선 후기 회화의 선구자인 공재 윤두서의 회화 세계'에 정해 있다.

양진희 국립세계문화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조선 상화를 읽는 세 가지 관점', 이선옥 의재미술관 관장은 '전라도 유배화가와 그 영향', 이계표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은 '조선 후기 사찰의 불화를 조계산 지역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할 예정이다.



박은순 덕성여대 명예교수 강의 장면.

<광주서구문화원 제공>

이다. 7회차에는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과 함께하는 광주서구미술·국립광주박물관 현장답사도 진행된다. 이어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의 '남도 서양화단에서 구상과 추상 회화', 김하경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의 '근현대 서양 화단과 미술가들의 활동', '미디어아트 창외도시 광주와 도시예술 프로젝트'를 주제 강연이 차례로 펼쳐진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이번 강좌는 미술을 매개로 예방 남도의 뿌리를 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강좌는 물론 현장 답사를 통해 남도 미술의 역사성과 정체성, 다양성 등을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한국화호남진흥원의 2024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사업으로 '조선시대 남도 회화의 진수 500+'가 선정돼 마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심봉사 삶 담은 음악극, 중앙아시아로

ACC 창·제작 '두 개의 눈', 키르기스스탄공화국서 23~24일 공연

고전적인 심정전은 심정이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인내하고 희생하는 삶을 다룬 작품이다. '호'에 초점을 둔 텍스트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 심봉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전혀 다른 흥미와 담론을 생성할 수 있다. ACC 창·제작 공연인 융복합 음악극 '두 개의 눈'은 기존의 심정전과는 다른 서사와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디어아트를 비롯해 음악, 판소리가 융합된 음악극은 심봉사의 서사를 매개로, 어떤 삶의 태도를 지향할 것인지 사유하게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음악극 '두 개의 눈'을 중앙아시아에서 선보인다. 오는 23일~24일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비슈케크 국립필하모닉홀.

지난 2020년 초연한 '두 개의 눈'은 미디어아트 그룹 무토, 판소리 공동창작그룹 입과손스튜디오가 협력해 재구성했다. A진행되는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음악극은 전통적인 심정전과는 결



'두개의 눈'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이 다른 이색적인 효과와 울림을 발한다. 작품은 무토의 박훈규와 홍찬혁이 비주연을 담당하며 거문고 박우재와 전자음악가인 신병호가 음악을 맡는다. 이밖에 이승호, 김소진은 소리꾼으로 등장하며 이향하는 고수를 맡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